
개방형 직위 안내자료

(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)

2020. 4.

문 화 재 청

I. 기관 일반현황

□ (조직 및 정원) 1소 5과, 해양유물전시관(목포·태안) 등, 정원 74명

* 정원 : 고공단(1명), 4급(5명), 5급(10명), 6~9급(58명)

* 정원 외 : 전문임기제(5명), 청원경찰(4명), 공무원(68명)



□ (관련 법률) 문화재보호법,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

□ (예산) 208억원(일반회계)

□ (유물현황)

합 계	등록유물	등록예정유물	임시보관유물	차용유물
54,081점	48,391점	4점	908점	4,778점

□ (시설현황)

구분		주요 시설물	면적
목포	본 소	전시실, 사무실, 사회교육관 등	○부지 18,204m ² ○건축 8,358m ²
	별 관	연구실, 탈염처리장, 경화처리장 등	○부지 6,864m ² ○건축 1,588m ²
태안	전시관	전시실, 수장고, 사무실, 강당 등	○부지 42,098m ² ○건축 9,999m ²
	보존센터	보존처리동, 경화처리장, 탈염처리장 등	○부지 7,102m ² ○건축 1,912m ²
계			○부지 74,268m ² ○건축 21,857m ²

□ (수중문화재 조사 선박 현황)

선박명	건조일	건조금액	주요제원	주요장비	비고
누리안호	'13.5	47억	○강선, 288톤 ○길이 40.3m/ 폭 9.0m ○최대승선 35명	○잠수사 감압챔버 ○잠수통제실(8인통제) ○고압컴프레서 2대 등	발굴용
씨뮤즈호	'06.11	7억	○FRP선, 18톤 ○길이 17.1m/ 폭 4.0m ○최대승선 12명	○휴대용 잠수통제장비 ○고압컴프레서 1대 ○각종 잠수장비 등	탐사용

□ (관람객 현황)

(단위: 명)

연 도	합계	목포해양유물전시관		태안해양유물전시관 (전면개관 : '19.11월)	
		방문 인원	방문객 구분	방문 인원	방문객 구분
2019	272,484	194,579	대 인 136,208 청소년 56,689 외국인 1,682	77,905	대 인 67,077 청소년 10,715 외국인 113

□ (전시관 전경)



II.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주요업무

- ◇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은 해양문화유산 가치창출을 위해 해양문화재(수중유물, 해양민속 등 포함)에 관한 조사·연구·발굴·보존·복원 및 관련 정책기술을 개발하고,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시·교육·홍보 등의 활용사업과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·외 학술교류 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

1 해양문화유산 조사·연구·발굴·복원 등 가치창출

- 해양문화유산 조사·연구·발굴·보존·복원 및 전승 체계 강화
 - 신고해역·해전유적지 탐사·발굴 등 수중문화재 체계적 조사
 - 섬 문화유산, 해양문화유적(조운문화유적 등) 조사·연구
 - 수중발굴 고선박·전통선박 연구·복원
 - 수중문화유산 5G 실감형 등 콘텐츠 개발·제작
 - 수중문화재 보존·분석 기술 선제적 확보 및 관련 연구 수행
 - 전통 재현선박 활용과 해양문화재 무형유산(항해기술 등) 전승 활성화

2 해양문화유산 전시·교육 등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

- 고객감동 해양문화유산 전시 특성화 및 맞춤형 국민참여 교육행사·국민 소통 기반 홍보 활성화
 - 해양유물전시관 전시·교육환경 개선 및 기획전·테마전 활성화
 - 고객감동형 전시 서비스 강화(찾아가는 해양문화재 등)
 - 고객 유형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(전통선박 항해체험,

- 어린이·청소년 체험 프로그램 등) 및 개발
- 고객 중심 홍보(국민참여 행사, 온라인 활용 등)를 통한 소통강화

3 해양문화유산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

- 해양문화유산 보호협력·공동연구 선도와 연구정보 아카이브 구축·활용
 - 국내외 해양문화재연구 전문기관 협력망 구축,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가간 연구자 교류
 - 해양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및 지식자원(소장유물 데이터) 온라인 서비스 등

4 책임운영기관 운영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

- 연구·서비스 환경 인프라 확충 및 조직·운영시스템 선진화 추진
 - 시설개선, 수중문화재 조사 장비확충으로 해양문화유산 연구·서비스 기능 내실화
 - 수중문화재 조사선박(씨뮤즈호·누리안호) 효율적 운영관리
 - 수중문화재 조사 교육훈련장 활용·전문인력 양성
 - 해양유물전시관 확장 이전 추진
 - 책임운영기관 사업 계획수립·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
 - 조직 결속력 강화 및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기관 경쟁력 강화

IV.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당면 현안 과제

1 해양문화유산 조사·연구·발굴·복원 등 가치창출

- (해양유산 글로벌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개발)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간 수중문화유산 분야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개발 등 대책 마련
- ('무형'의 해양문화유산 보호 필요) 도시화·산업화로 섬지역 인구감소·고령화가 속에 따른 해양민속 등 무형유산 전승 단절 방지 방안 마련
- (해양문화유산 조사·연구를 선도하는 역량 강화) 국내 유일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기관 위상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마련, 출수유물 관련 연구 강화
- (수중문화재 조사인력 역량 강화) 수중문화재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중조사원 및 심해조사 전문가 육성 필요

2 해양문화유산 전시·교육 등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

- (전시 대응력 향상) 여가친화적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문화서비스 콘텐츠 개발 확대
- (전시기능 적극적 홍보 활성화) 전시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다변화, 협업전시 및 관광상품 연계 등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방안 마련

3 해양문화유산 국내외 교류협력 등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

- (수중문화재 조사 국가간 전략적 협력 증진 필요) 중국의 '일대일로(一帶一路)' 정책 추진에 대응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물적, 인적, 학문적 인프라 확대(ODA사업 강화 등)

4

책임운영기관 운영 등 미래 성장동력 기반 구축

- (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확장 이전) 보존·연구·전시 공간 부족을 위한 추가 공간 마련, 근현대·재현선박(6척)의 체계적인 전시·관리를 위한 시설 확장 이전 추진('20~'26)
- (서해문화재과 기관 독립) 충청·경기지역 해양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조직의 신설 및 강화 등 문화재 연구기반 확대